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팀명

	일시	11 월 11 일 14 : 00 장소명 오뜨카페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규하(2171232)	O	
	임강민(2171074)	O	
	주창돈(2411105)	O	
	성명(학번)	O / X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람타 화이트 북	진도페이지:	0 p. ~ 0 p.
1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임강민, 박규하, 송미화 교수님, 주창돈]</p> <p>모임 목적: 첫 만남을 통한 친목 도모 및 자기소개</p> <p>자기소개</p> <p>임강민 21학번 3학년 전자트랙 기존에 컴퓨터 트랙쪽이었지만 적성에 맞지않아 올해 전자트랙쪽으로 전과</p> <p>주창돈 24학번 2학년 전자트랙 2트랙이 문현정보 트랙이었지만 산업공학트랙에 더 흥미를 느껴 변경</p> <p>박규하 21학번 2학년 산업공학트랙 현재는 산업 공학트랙이지만 전공이 맞지 않아 법 정책트랙으로 전과 예정</p> <p>송미화 교수님 3명모두 전과한 친구들인게 흥미롭다고 하셨고 모두 공과 계열과 관련되어 있어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재밌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거 같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전공 고민과 진로 이야기를 들으신 후 인생 조언을 해주셨다.</p>		

일시	11 월 25일 14 : 00 장소명 오뜨카페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규하(2171232)	O
	임강민(2171074)	O
	주창돈(2411105)	O
	성명(학번)	O / X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람타 화이트 북	진도페이지: 7 p. ~ 211 p.



[좌측부터 박규하, 주창돈, 임강민]

2주차

토론 내용

모임목적: 독서 및 독서토론을 위한 준비항목 정리

평소 독서성향

임강민 자기계발, 경제, 철학책을 주로 읽었다.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기억의 남는 책은 [부자아빠 가난한아빠],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다. 이유는 책내용 삶에 적용시켜 본 책들이다.

주창돈 소설책을 좋아함 소설모음집을 주로 읽었다.

평소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책의 거부감 없음 공부 때문에 잘 안읽게 될뿐 기회가 된다면 많이 읽고 싶다

박규하 철학 과학 비문학 도서를 많이 읽어왔다 요즘은 소설책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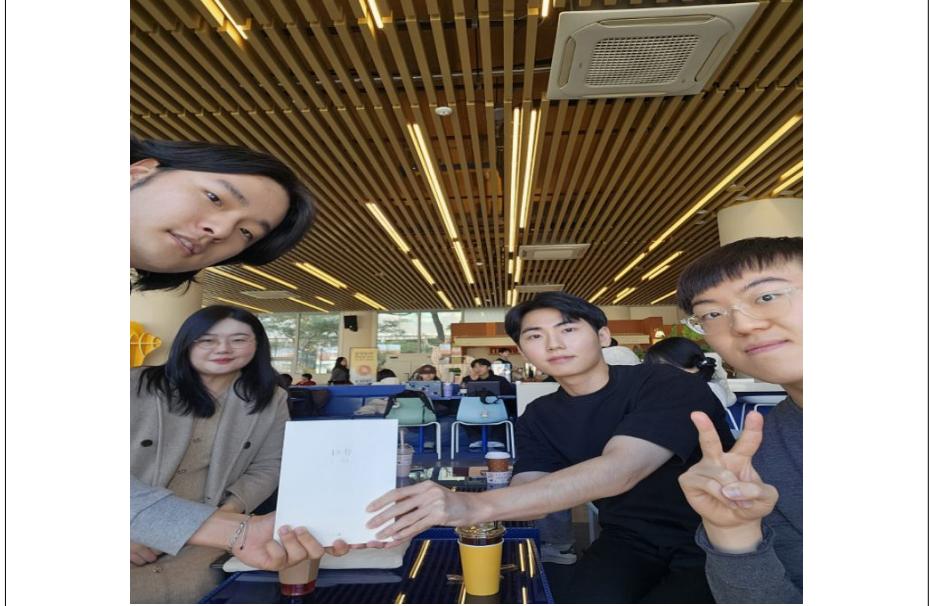
람타 책을 선택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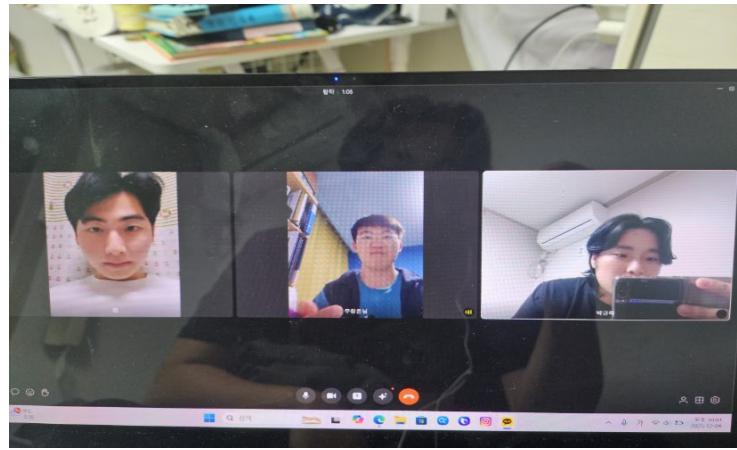
임강민 평소 철학책을 좋아한다. 람타라는 제목을 보고 흥미로운 철학책 같아서 읽어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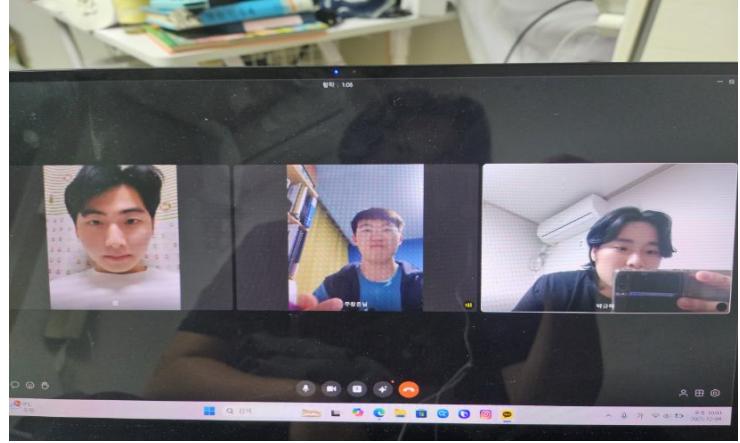
주창돈 처음에 스테이블 코인이랑 람타 두개 있었는데 람타가 도서관에 있고 빌리기 수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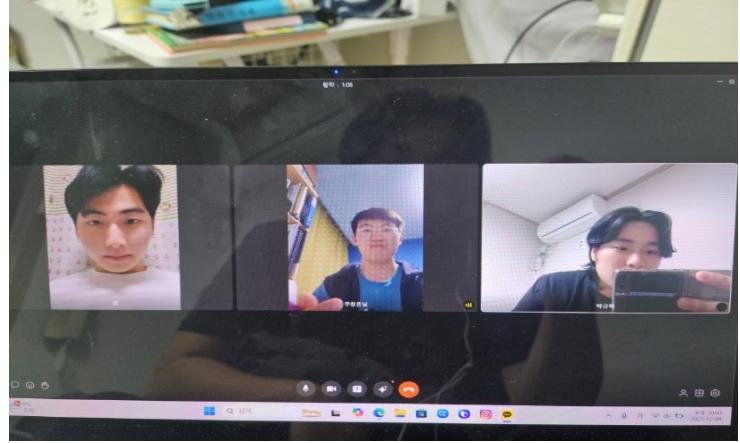
박규하 여러 가지 책 중에 예상이 가장 안가는 책이고 가장 접하지 않을 거 같은 책이어서 이번 기회에 읽어 본다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선택했다.

독서 토론을 위해 각자 마음에 드는 파트를 선정한 뒤, 선택한 부분의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오기로 하였다. 또한 해당 파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선정하고, 『람타』를 읽으며 떠오른 생각과 의문점도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약 30분 동안은 함께 책을 읽는 공동 독서 시간을 가졌다.

	일시	12 월 2 일 14 : 00 장소명 오뜨카페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규하(2171232)	O	
	임강민(2171074)	O	
	주창돈(2411105)	O	
	성명(학번)	O / X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람타 화이트 북	진도페이지:	211 p. ~ 310 p.
1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박규하, 송미화 교수님, 임강민, 주창돈]</p> <p>모임목적: 교수님과 람타의 관한 토론</p> <p>송미화 교수 - 람타라는 책을 종교적인 이유로 선택한 것이 아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것을 만나는게 즐거운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해 선택함.</p> <p>주창돈 학생 - 조금이나마 세상의 관점을 다양하고 깊게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준 책.</p> <p>박규하 학생 - 자신만의 가치를 더욱 더하여 개인적인 사고를 함양시켜주는 책으로 람타 화이트북을 통해 낯선 분야의 지식을 경험하여 우리 뇌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한 포인트가 되었던 책.</p> <p>임강민 학생 -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별게 아니게 되고 해보지 못한 생각을 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함.</p>		

	일시	12 월 4 일 22 : 00 장소명 비대면 그룹 통화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규하(2171232)	O	
	임강민(2171074)	O	
	주창돈(2411105)	O	
	성명(학번)	O / X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람타 화이트 북	진도페이지:	310 p. ~ 350 p.
4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 ○○○, ○○○ …]</p> <p>모임목적: 독서토론</p> <p>임강민</p> <p>1. 파트 설명 인간으로 존재하는 경험 그 자체가 신이 물질이라는 제한된 형태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배우고 깨닫는 과정이기에, 모든 사람의 경험은 그 자체로 훌륭한 가치를 지닌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경험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p> <p>2. 인상적인 내용 어떠한 경험도 긍정적/부정적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순수하고 고결한 삶의 경험이 된다는 가르침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나쁜' 경험마저도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위로를 주며, 다가올 경험을 담담히 수용할 용기를 얻게 했습니다.</p> <p>3. 의문 및 답변 의문: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경험도 훌륭한 가치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박규하 답변: 나쁜 행위라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반성, 깨달음,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삶에 필요한 소중한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p>		

	일시	12 월 4 일 22 : 00 장소명 비대면 그룹 통화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규하(2171232)	O	
	임강민(2171074)	O	
	주창돈(2411105)	O	
	성명(학번)	O / X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람타 화이트 북	진도페이지:	310 p. ~ 350 p.
4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 ○○○, ○○○ …]</p> <p>모임목적: 독서토론</p> <p>주창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 설명 "창조와 진화" 파트를 중심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은 '우리(인간)'이며, 인류야말로 진정한 사고 과정을 거쳐 법치와 정의를 만들어낸 창조자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인상적인 내용 인간이 죄악을 저질러도 응징하는 신적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간 스스로 법치와 통제 시스템을 창조했고, 구석기부터 현대까지 모든 것을 발전시킨 주체가 인류이기 때문에, 진정한 창조자는 인류라는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문 및 답변 의문: 인간의 내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는 관찰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 임강민 답변 (내면 반영): 인간의 내면은 결국 외면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므로, 내면이 썩어 문드러지면 외적인 모습에 반영되어 티가 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박규하 답변 (AI 관찰자): 미래에는 상담 등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분석하는 AI가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일시	12 월 4 일 22 : 00 장소명 비대면 그룹 통화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규하(2171232)	O	
	임강민(2171074)	O	
	주창돈(2411105)	O	
	성명(학번)	O / X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람타 화이트 북	진도페이지:	310 p. ~ 350 p.
4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 ○○○, ○○○ …]</p> <p>모임목적: 독서토론</p> <p>박규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요약 신의 유일한 계획은 ‘존재하는 것’이며, 삶의 목적은 존재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삶이라는 무대 위에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신은 어떠한 평가(선악)도 내리지 않으며, 모든 것은 그저 존재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인상 깊은 내용 죽음은 파괴가 아닌 형태의 전환이고 생명은 영속적이라는 통찰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아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조차 신의 평가 없이 존재한다는 관점을 주목했습니다. 의문 및 답변 의문: 책에서 말하는 '무엇이든 원하는 걸 이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박규하 답변: 세상은 결국 나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감으로 세상을 보고 내 안에서 정의하며 느끼기 때문에, 같은 하늘을 보고도 '아름다운 하늘'이라고 정의할 수 있듯 모든 가능성은 나의 내면에서 창조된다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임강민 (2171074)	이번 독서클럽 활동은 다 함께 책을 읽고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같은 책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혼자 읽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독서클럽 활동을 통해 단순한 책 읽기를 넘어, 함께 소통하는 독서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관점을 접하며 책을 다각도로 이해하게 되었고, 토론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도 향상된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을 이어가겠습니다.
	2	주창돈 (2411105)	책 람타 화이트북을 통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세계와 그 이야기를 경험해보니 무척이나 신기하고 새로운 신비주의에 빠져드는 느낌이 들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신과 인간으로 나누어 생각해보게 되었고 인간이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	박규하(2171 232)	람타라는 책은 처음에 철학 종교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읽다보니 개인의 마음의 평화를 다루는 책이어서 읽을만한 가치가 많은 책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끼리 같은 책을 읽고 다른 질문을 떠올리고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더 다양한 분야의 책들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성명 (학번)	
	5	성명 (학번)	

